<h1>나 혼자만 레벨업-73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c4d49db4d6b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73화</p>  
<p>쿵!</p>  
<p>볼칸이 쓰러졌다.</p>  
<p>뿌옇게 피어오른 먼지 속에서 진우가 유유히 걸어 나왔다.</p>  
<p>진우는 주위를 둘러보았다.</p>  
<p>바로 그림자 병사들을 도우러 갈 생각이었는데, 마침 저쪽도 정리가 끝나가는 듯 보였다.</p>  
<p>"키에에엑!"</p>  
<p>"케겍!"</p>  
<p>"케에엑!"</p>  
<p>그림자 병사들의 칼질에 볼칸의 부하들의 수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었다.</p>  
<p>'상태창.'</p>  
<p>진우는 불러낸 상태창을 살폈다.</p>  
<p>방금 레벨업된 상태라 체력과 마나가 모두 가득 차 있었다.</p>  
<p>'마나는 충분하니까 딱히 도울 필요 없겠네.'</p>  
<p>마나가 건재하는 한 그림자 병사들은 불사신에 가까웠다.</p>  
<p>그게 언데드 군단의 힘.</p>  
<p>패잔병 처리는 병사들에게 맡기기로 하고, 진우는 전리품을 수거하기 위해 돌아섰다.</p>  
<p>"흠."</p>  
<p>포장된 선물 상자를 뜯는 기분이라고 할까?</p>  
<p>볼칸의 사체를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.</p>  
<p>'어떤 게 나왔을라나?'</p>  
<p>사체에서 여러 개의 빛이 반짝였다.</p>  
<p>진우는 늘 하던 것처럼 빛을 향해 손을 뻗었다. 그러자 아이템 획득 메시지가 떴다.</p>  
<p>띠링!</p>  
<p>[아이템: 악마 군주의 귀고리]를 발견했습니다. 획득하시겠습니까?</p>  
<p>[아이템: 탐욕의 구슬]을 발견했습니다. 획득하시겠습니까?</p>  
<p>[아이템: 볼칸의 뿔] 2개를 발견했습니다. 획득하시겠습니까?</p>  
<p>[재료 아이템: 세계수의 파편]을 발견했습니다. 획득하시겠습니까?</p>  
<p>어쩐지 볼칸과 싸우기 전부터 묘하게 기분이 좋더라니.</p>  
<p>예상했던 대로 아이템이 쏟아져 나왔다.</p>  
<p>목록을 확인하는 진우의 얼굴에 희색이 돌았다.</p>  
<p>'볼칸의 뿔은 보나마나 잡템일 테고.'</p>  
<p>아이템 이름이나 개수로 봤을 때, '볼칸의 뿔'은 악마 몬스터를 처치하고 얻은 '악마의 뿔'처럼 골드 벌이용 잡동사니가 분명했다.</p>  
<p>그럼 나머지 세 개가 진짜들인데...</p>  
<p>그중에서도 유독 시선을 끄는 아이템이 하나 있었다.</p>  
<p>[재료 아이템: 세계수의 파편]을 발견했습니다. 획득하시겠습니까?</p>  
<p>'재료 아이템이 뭐지?'</p>  
<p>이걸로 뭘 만들 수 있다는 걸까?</p>  
<p>아니면 퀘스트의 재료가 된다는 걸까?</p>  
<p>처음 보는 형식의 아이템이 진우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.</p>  
<p>아이템의 설명을 읽어 보려면 먼저 아이템을 구체화시켜야 한다.</p>  
<p>그래서 일단 아이템 획득 여부를 묻는 메시지들을 전부 수락했다.</p>  
<p>"모두 획득."</p>  
<p>볼칸의 사체 여기저기서 반짝이던 빛들이 승낙과 동시에 아이템으로 변해 발 앞에 스르르 나타났다.</p>  
<p>귀고리 두 개와, 붉은 구슬 하나와, 성인 여성 크기의 커다란 목재 덩어리.</p>  
<p>어느 것이 '세계수의 파편'인지는 금세 알 수 있었다.</p>  
<p>진우는 목재를 응시했다.</p>  
<p>그랬더니 아이템 정보가 떠올랐다.</p>  
<p>[재료 아이템: 세계수의 파편]</p>  
<p>입수 난이도: ??</p>  
<p>종류: 재료</p>  
<p>세계수의 가지를 꺾어 만든 '볼칸의 몽둥이'에서 오염된 부분을 제거하고 남은 목재입니다. 세계수에서 얻어 낸 목재는 강한 마력을 지니고 있어 최고급 마법도구의 재료로 쓰입니다.</p>  
<p>'최고급 마법도구의 재료라.'</p>  
<p>이걸로 뭘 만들 수 있는지 궁금했지만 안타깝게도 거기까진 나와 있지 않았다.</p>  
<p>그래도 보통 물건이 아님은 확실했다.</p>  
<p>가까이 두고 있는 것만으로도 강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.</p>  
<p>'이 나무... 유용하게 쓰일지도 모르겠다.'</p>  
<p>진우는 '세계수의 파편'을 상점에 넘기는 대신 창고로 보냈다.</p>  
<p>그 후 다른 아이템들도 하나씩 정보를 확인해 보았다.</p>  
<p>[아이템: 악마 군주의 귀고리]</p>  
<p>입수 난이도: S</p>  
<p>종류: 장신구</p>  
<p>근력 +20, 체력 +20</p>  
<p>악마 군주의 목걸이, 악마 군주의 반지와 함께 착용하면 세트 효과가 개방됩니다.</p>  
<p>세트 효과 1. (개방 안 됨)</p>  
<p>세트 효과 2. (개방 안 됨)</p>  
<p>'이건 세트 효과가 있네?'</p>  
<p>단일 옵션만 놓고 보면 A급이었던 '파수꾼의 목걸이'와 비슷했지만, '악마 군주의 귀고리'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세트 효과가 있었다.</p>  
<p>세트 효과를 뺀다고 해도 훌륭했다.</p>  
<p>근력과 체력이 각각 20씩.</p>  
<p>'1업 당 능력치 포인트가 5개 오르는 셈이니까.'</p>  
<p>능력치 포인트로만 계산하면 8업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수치였다.</p>  
<p>진우는 기쁜 마음으로 귀고리를 집어 들었다.</p>  
<p>[아이템: 악마 군주의 귀고리]를 착용하시겠습니까?</p>  
<p>'착용.'</p>  
<p>귀고리 역시 다른 아이템들처럼 형태가 감춰지며 옵션이 적용되었다.</p>  
<p>올라간 스탯을 보며 진우는 만족스럽게 웃었다.</p>  
<p>악마 군주의 장신구 시리즈라.</p>  
<p>'분명 다른 장신구들도 여기서 나오겠지?'</p>  
<p>악마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걸 보니 악마성에서 나오는 아이템이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었다.</p>  
<p>어떤 세트 효과가 있을까?</p>  
<p>이제 겨우 파츠 하나를 손에 넣었을 뿐인데 벌써부터 기대가 됐다.</p>  
<p>하지만 진우의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.</p>  
<p>'이건...?'</p>  
<p>[아이템: 탐욕의 구슬]</p>  
<p>입수 난이도: A</p>  
<p>종류: 마법 도구</p>  
<p>고위 악마 볼칸의 피를 굳혀서 만든 구슬이었다. 마법 효과를 증폭시켜 더 많은 피해를 입힙니다.</p>  
<p>효과 '파괴 욕구': 마법 데미지를 2배 증가시킵니다.</p>  
<p>당구공 크기의 붉은색 공.</p>  
<p>진우는 '탐욕의 구슬'을 손에 쥐었다.</p>  
<p>스탯의 상승은 없었다.</p>  
<p>마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 전용 스킬창들을 꺼내 살펴 봤지만 추출할 수 있는 그림자 수나 저장할 수 있는 그림자 수도 변하지 않았다.</p>  
<p>'내가 쓸 수 있는 템이 아닌가?'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갸웃거렸다.</p>  
<p>마법 데미지 두 배 증가.</p>  
<p>성능은 정말 엄청났다.</p>  
<p>원래 마법을 증폭시키는 도구는 엄청나게 비싸서 소수의 마법 계열 헌터만 사용이 가능했다.</p>  
<p>하지만 그런 고가의 아티팩트 중에서도 출력을 두 배로 높여 주는 물건이 있다는 소리는 아직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었다.</p>  
<p>그런 게 있다면 특종으로 난리가 났을 거다.</p>  
<p>여태 몰랐을 리가 없다.</p>  
<p>그런데 이 '탐욕의 구슬'인가 뭔가하는 아이템은 마법 데미지를 두 배나 올려 준다고 되어 있었다.</p>  
<p>'그럼 뭐하나?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걸.'</p>  
<p>진우는 입맛을 다셨다.</p>  
<p>단순히 마법 데미지를 두 배로 만들어 주는 물건이라면 자신에게는 아무 영향도 끼칠 수 없었다. 그림자 추출과 그림자 저장은 데미지와 무관하니까.</p>  
<p>다른 스킬들은 아예 마법도 아니고.</p>  
<p>차라리 지능을 올려 주는 아이템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.</p>  
<p>'쯧.'</p>  
<p>진우가 아쉬운 눈빛으로 '탐욕의 구슬'을 가볍게 던졌다 받았다 하며 노는 동안, 졸개들 정리를 끝낸 그림자 병사들이 하나씩 다가왔다.</p>  
<p>가장 빠른 녀석은 이그리트였다.</p>  
<p>오른손에 세 개, 왼손에 세 개.</p>  
<p>총 여섯 개나 되는 악마의 머리를 양손에 들고 와 진우의 앞에 떡하니 내려놓았다.</p>  
<p>"..."</p>  
<p>진우는 무릎 꿇는 이그리트를 바라보면서 옆머리를 긁적거렸다.</p>  
<p>"그거 좀 안 하면 안 될까?"</p>  
<p>물론 정중히 고개를 숙인 이그리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.</p>  
<p>"니가 그러니까..."</p>  
<p>진우의 시선이 아이언에게 향했다.</p>  
<p>아이언은 언제 잘랐는지 모를 볼칸의 머리를 질질 끌고 와서는 똑같이 무릎을 꿇었다.</p>  
<p>"...쟤도 따라 하잖아."</p>  
<p>심지어 저건 내가 잡은 건데.</p>  
<p>진우는 아이언에게 시선을 고정시킨 채 한숨을 푹 내쉬었다.</p>  
<p>그러다 문득 재미난 생각이 들었다.</p>  
<p>'아이언의 방패를 내가 썼었던 것처럼 '탐욕의 구슬'을 한번 얘들한테 써 보게 할까?'</p>  
<p>마침 일반 병사들 뒤로 느릿하게 걸어오는 마법병들이 보였다. 마법병은 기사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병사들보다도 발이 느렸다.</p>  
<p>진우는 그 셋 중 가장 빨리 도착한 녀석을 불러냈다.</p>  
<p>손가락을 까딱거리자.</p>  
<p>검은 로브를 뒤집어쓴 마법병 하나가 부지런하게 걸음을 옮겼다.</p>  
<p>'...그냥 내가 가고 말지.'</p>  
<p>고개를 가로젓던 진우가 성큼성큼 걸어가 마법병의 손에 '탐욕의 구슬'을 쥐여 주었다.</p>  
<p>그러고는 아까 자신이 뛰어오르는데 사용했던 건물을 가리켰다.</p>  
<p>어차피 그림자 병사들은 본인의 의지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었다.</p>  
<p>진우가 사인을 내렸다.</p>  
<p>"발사."</p>  
<p>그 순간 하늘로 치켜든 마법병의 손 위에 평상시의 두 배쯤 되는 불덩어리가 생겨났다.</p>  
<p>'헉!'</p>  
<p>진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.</p>  
<p>놀라고 있을 틈도 주지 않고, 손끝의 불덩어리는 금방 마법병의 손을 떠났다.</p>  
<p>슈우우욱-</p>  
<p>퍼어어어엉!</p>  
<p>"허!"</p>  
<p>진우는 입이 쩍 벌어졌다.</p>  
<p>폭발에 휩쓸린 건물은 종이로 지은 장난감 집처럼 부서져 내렸다.</p>  
<p>건물을 태우는 불길은 쉽게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.</p>  
<p>타닥, 타닥!</p>  
<p>치솟아 오르는 불꽃을 놀란 눈으로 지켜보던 진우가 급히 마법병에게서 '탐욕의 구슬'을 넘겨받았다.</p>  
<p>그리곤 다시 아이템 정보를 꼼꼼히 확인했다.</p>  
<p>'없어. 확실하게 없다.'</p>  
<p>몇 번이고 다시 읽어 봐도 '탐욕의 구슬' 정보에는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없었다.</p>  
<p>그렇다면 이걸 거래할 수 있다는 뜻인가?</p>  
<p>꿀꺽.</p>  
<p>진우가 마른침을 삼켰다.</p>  
<p>진우의 시선이 다시 건물로 옮겨갔다.</p>  
<p>화르륵!</p>  
<p>아직도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건물 일부분이 또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무너졌다.</p>  
<p>그걸 보는 진우의 입가가 씰룩거렸다.</p>  
<p>'이거 참...'</p>  
<p>마법계열 헌터 분들이 아주 환장을 하시겠는걸?</p>  
<p>처음의 아쉬웠던 눈빛은 어디가고, 진우의 시선은 점점 기대감으로 물들어 갔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햇볕이 쨍쨍한 오후.</p>  
<p>"902호 청년요?"</p>  
<p>아줌마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잠시 후 대답했다.</p>  
<p>"글쎄요, 요즘 안 보이던데."</p>  
<p>"아, 네. 감사합니다."</p>  
<p>현기철은 꾸벅 고개를 숙였다.</p>  
<p>성진우 헌터가 사는 낡은 아파트 근처에서 그를 기다리기 시작한 지 벌써 사흘째.</p>  
<p>아직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다.</p>  
<p>매일 직접 갈아오고 있는 야채 주스가 무안할 지경이었다.</p>  
<p>현기철은 한숨을 내쉬며 폰을 들었다.</p>  
<p>뚜르르, 뚜르르.</p>  
<p>곧 상대가 전화를 받았다.</p>  
<p>-어, 기철아.</p>  
<p>"과장님."</p>  
<p>상대는 안상민 과장이었다.</p>  
<p>"성진우 헌터님이 통 보이지가 않습니다. 아파트 주민들도 요즘엔 본적이 없다고 하네요."</p>  
<p>-그래?</p>  
<p>"네."</p>  
<p>-어쩔 수 없지. 그럼 너도 내일부터는 다시 사무실로 와라.</p>  
<p>"네, 알겠습니다."</p>  
<p>뚝.</p>  
<p>안상민은 전화를 끊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.</p>  
<p>성진우 헌터는 대체 어딜 간 걸까?</p>  
<p>며칠 전부터 도무지 연락이 되질 않았다. 일부러 전화를 피하나 싶어 현기철을 보내 봤더니 집 근처에서도 보이질 않는단다.</p>  
<p>문득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었다.</p>  
<p>'누가 누굴 걱정하는 건지는 모르겠다만.'</p>  
<p>여하튼 기분이 좀 싱숭생숭했다.</p>  
<p>톡톡.</p>  
<p>누가 어깨를 두드려서 돌아보니 박희진 헌터가 옆에 와 서 있었다.</p>  
<p>"동생에게는 일주일 정도 친구와 여행을 다녀온다고 말했다는데요?"</p>  
<p>"성진우 헌터님이요?"</p>  
<p>"네."</p>  
<p>"그렇다면... 목적지가 지구 위는 아닐 겁니다."</p>  
<p>"네?"</p>  
<p>박희진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.</p>  
<p>안상민이 빠르게 설명했다.</p>  
<p>"해외로 나간 흔적은 당연히 없으시고, 요 며칠간 은행에서 돈을 찾은 기록도, 카드를 쓴 기록도 전혀 없어요."</p>  
<p>"그런 것도 알 수 있어요?"</p>  
<p>"저야 헌터 분들 따라다니는 게 일이니까요."</p>  
<p>"어머나."</p>  
<p>"거기다 협회의 위치 추적 기록에 의하면 마지막으로 통신이 끊긴 곳이 시내 한복판이랍니다. 그것도 5일 전. 정말 미스터리 하지 않습니까?"</p>  
<p>"설마 납치라도 당한 건 아니겠죠?"</p>  
<p>얼떨결에 던진 박희진의 한마디.</p>  
<p>눈이 마주친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피식 웃었다.</p>  
<p>성진우가 누군가?</p>  
<p>상급 던전, 그것도 레드 게이트를 혼자서 클리어한 인물이다.</p>  
<p>안상민이 볼을 긁적거리며 말했다.</p>  
<p>"성진우 헌터님을 데려가려면 전원 헌터로 구성되어 있다는 중국의 특수부대 정도가 와야 할 만할 겁니다."</p>  
<p>박희진이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웃음 짓고 있던 안상민이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에 질문을 던졌다.</p>  
<p>"그런데 여행 간다고 말했다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?"</p>  
<p>"아, 한송이요. 송이랑 연락 주고 받고 있거든요. 그 애가 성진우 씨 동생이랑 같은 학교라서 한번 물어봐 달라고 했죠."</p>  
<p>"아하..."</p>  
<p>안상민의 대답을 끝으로 두 사람의 대화가 일시적으로 끊겼다.</p>  
<p>그리고 둘은 같은 생각을 했다.</p>  
<p>'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, 이 사람은?'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